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93 충현전도대 시동

신앙교육 및 전도훈련, 2월 14 - 28일 신청접수
3월 3일부터 12주간, 매주 수요일 2부 예배후, 80분간 교육



전도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는 '93년도 충현전도대 훈련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3월 3일부터 12주동안 실시되는 전도훈련을 통해서 훈련자들은 누구에게나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뿐만아니라 개인적인 경건훈련도 겸해서 하므로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신자로 자라날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훈련된 대원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펼칠 예수사랑 큰잔치등 전도운동에 앞장설 뿐만아니라 각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며 교회배가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 훈련은 매주 수요일 2부 예배후 8시 20분 부

터 10시까지 베다니홀에서 실시하고 목요일은 각 전도현장에서 전도실습을 할 계획이다.

금번의 훈련목표 인원은 20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훈련받기를 원하는 교우들은 2월 14일부터 28일까지 사무국의 양봉순 선생에게 신청하면된다. 훈련대상은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를 우선으로 하고 타교회 교인도 가능하며 20세 이상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특수지역(직장, 학원, 병원, 기타지역) 전도에 헌신을 희망하는 성도로 교구목사의 추천을 받은 세례교인으로 활동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면 된다.

중국 심양 서탑교회에 봉고차 기증

선교위원회(위원장 하대선 장로)는 우리 교회가 지난 92년 8월 정기당회에서 중국 심양의 서탑교회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봉고차를 지난 2월 8일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보냈다. 2월 8일 인천항에서 컨테이너에 옮겨진 봉고차는 선박 스케줄로 인해 2월 9일 부산항으로 옮겨진뒤 2월 10일 부산항을 출발, 2월 12일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봉고차 지원은 단지 물질적 지원만이 아닌 영적인 필요들을 돕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심양의 서탑교회는 조선족의 신앙의 귀감이 되는 오애인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로 조선족들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오애인 목사는 중국의 문화혁명당시 공산당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과감히 항거, 투옥되는 등 여러차례의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앙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지난 8월에 오애인 목사가 본 교회를 공식방문했을 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심방하시는데 심방용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을 접한 본 교회는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 금번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봉고차 지원을 위한 실무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여러 분야에 있어서 혼 혼한 미담이 되고 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까다로운 세관의 통관 업무가 무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금번 봉고차의 기증으로 중국 심양서탑교회의 심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인해 중국의 우리동포들이 복음의 혜택을 더욱 누릴 수 있을 뿐만아니라 중국 및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선교의 기회가 더욱 열리기를 소망한다.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교구위원회 주관으로 금번들어 첫번째 새가족환영회를 가졌다. 지난해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대상으로 모인 환영회에는 전교구의 식구들이 모여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새가족환영회는 2개월에 한번씩 열린다. (사진/이승철 집사)

감사위원회 업무분담 효율적인 감사업무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장 최대원 장로)는 자체내 업무분담을 통해 감사업무를 보다 전문화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분담자를 발표했다. 교회 내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은 감사위원회 업무분담을 숙지하고 해당부서 장로들과 감사업무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 김광남 장로 :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식당, 테이프실, 출판국
- 김재명 장로 : 각 위원회(전도, 교육, 찬양, 재정, 건축위원회 제외) 및 소속기관, 안수집사회, 권사회
- 윤성철 장로 : 찬양위원회 및 소속기관, 교육위원회 및 소속기관
- 안익태·서일영·강 협 장로 : 전도위원회, 남녀전도회 협의회

92년도 결산이월감사 오늘부터 28일까지

한편 감사위원회는 92년도 결산이월에 대한 감사를 오늘부터 28일(주일)까지 매주 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감사위원회실(선교관 404호)에서 실시한다. 모든 부서는 이 기간중 92년도 결산 이월을 확인하고 93회계연도의 회계 기장을 해야할 것이다.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 1. 김창인 원로목사
 - 2월 15-18일, 덕소교회에서 부흥회 인도
 - 2월 17일 11시, 종신대학 졸업식 예배에서 설교

도서관 운영개선

당회는 장학위원회에서 건의한 '도서관 운영개선안'을 확정하고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도서관 출입의 제한이 없어서 주일 경우에는 도서관을 필요로 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서관 출입은 도서관이 발급한 열람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가능하며 (1) 중고등학생은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신학교에 진학하고자 준비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성인은 출입할 수 있으나 성경공부, 성경연구를 위해 도서열람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한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사서로 일하던 홍경숙 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고 김정은 선생이 새로운 사서로 일하게 되었다.

■ 증현강단 ■

주일신학

(마 12:1-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불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 12:11-13)

신 성 중

<목사·당회장>



레 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
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
하니 신자들도 거룩하라는 말입니다. 거룩
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말이 아니고 ‘구별되
어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 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불신자들
과는 시간개념이나 물질개념에 있어서 달라
야 합니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가진 생명과 시간은 내 것이 아
니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
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
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 날의 중심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 복음과 율법의 대립

본문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
쟁이 벌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
로, 제사장들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
타나더니 인기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칫하면 모든 것을 다 빼
앗길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조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
끔 참가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
를 하다보니 미끼가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그 중에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를
범하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 안식일을
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
식일을 어겼는데 성경에 나온 원리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소위 바리새인들이
나 서기관들이 지키던 습관들을 어긴 것입
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은 많습니다. 중요
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소위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
법주의와 은혜주의, 복음주의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2.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이유

‘안식’이라는 말은 사바트라는 말로 그친
다, 그만둔다, 쉬는다는 말입니다. 쉴 뿐만 아
니라 세상일을 안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아담때는 없었는데 하나
님이 갑자기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로 하여금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합니다. 흔히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기를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하나
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의
바른 관계를 회복
하시려고 십계명
을 주시면서 특별
히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신 것입
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지키는
이유와 목적을 알
아야 합니다. 그
것을 모르고는 기
쁨이 없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
키는 것과 종이
노예처럼 억지로
지키는 것과는 다
릅니다.

하나님이 가
장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
른, 구별된 생활
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안될 것을 말
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
에 덧붙여서 율타리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었
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
다. 그들은 말씀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율
법을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그날 해야 할
서론 아홉 가지, 해서는 안될 것 서론 아홉
가지, 부수적인 것 여섯 가지를 곁들더니
이백 서론 넷입니다. 이렇게 이백서론네가

지의 해서는 안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항목을 따지는 사람은 기쁨의 안식일을 지
키지 못합니다. 이 날 원리적으로 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런데 그 방해가 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릅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잘 지키
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
일에는 예수님이 기뻐하
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은 남을
이해하고 정죄하지 말아
야 합니다. 그 날은 생명
을 구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주의 가
운데서 가장 철
저한 것이 이단
으로 알려진 안
식교회인데, 안
식교인들을 만나
면 그들은 우리
들에게 일요신자
라고 하면서 주
일성수하라는 말
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합니
다. 물론 직접적
인 구절은 없습
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인
반면에 주일은
부활 기념일입니
다. 창조 기념일
은 그림자이고, 부
활 기념일은 실체이고 원형입니다. 따라서
그림자인 안식일보다 실체인 주일이 더 중
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일은 어떤 날
입니까?

첫째, 주일은 부활기념일입니다. 부활은
창조를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인간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
계가 바로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잘못
된 관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흘만에 부활
을 하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창조는 인간
의 범죄로 인해 완성되지 않고 깨어져졌습
니다. 이것을 회복시켜준 날이 바로 부활기
념일인 주일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의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습
니다.

셋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
부터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 날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의미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
이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고, 재림하
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바
로 이런 날입니다.

3. 안식일신학과 주일신학

안식일신학과 주일신학은 다릅니다. 이
들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
다. 연속성이란 한 주일 동안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옛날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꼭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님께서 한 주를 주기로 해서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질 때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날짜가 다릅니다. 마
지막날에서 첫째 날로 옮겨졌습니다. 한 주
의 첫째날을 지키는 것은 한 주간을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성수는 하나님 앞에
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
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
은 필요불가결한 것과 생명에 관한 것과 주
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주일에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
는 날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주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
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일에
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은 남을 이해하고 정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날은 생명을 구하
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주일을 지
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
이 풍성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척도

세상에서 사람을 바로 보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또 이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는 사람을 보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
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들은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직언하는 사
람은 싫어한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사람을 보는 두가지의 척도가 있
다. 첫째는 돈에 깨끗한가 아닌가를 본다. 이
것은 돈을 꾸어주거나 작은 심부름을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다음은 시간을 잘 지키느냐
안지키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언제나 늦는
사람은 신용을 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은 대개
그 까짓 시간쯤이야 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시
간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바
로 돈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즈음처럼 시간지킴이가 어려운 때도 없다.
그러나 시간 전에 도착해 있으려고 하면 시간
은 잘 지킬 수가 있다.

신성중 목사 설교 방송

- 극동방송(FEBC) 1188KHz
토요일 오후 6:30~7:00
- 기독교방송(CBS) 837KHz
주 일 오후 7:00~7:30
- 미주기독교방송(KCBN)
수요일 오전 9:10~10:00
목요일 오후 6:10~7:00

◆책소개◆

치유하시는 은혜

데이빗 A. 씨먼즈 지음, 윤종석 옮김
국판, 242면, 3,200원, 두란노서원 발행

장 경 철

〈목사, 초동6부·제16교구 지도〉

혹시 당신은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1. 나는 한시도 차별해지지를 않는다. 더 잘 믿어 보려고 하지만 늘 실수가 두렵다.
2. 나의 모든 행위는 위선적인 것 같다.
3.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4. 나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 갈등을 느낀다.
5. 나는 우울하고 만사가 귀찮다.

신앙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중 많은 수가 사실 자신의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가져지지 않는 죄책감, 불안감, 낮은 자존심, 분노와 우울, 억압된 부정적 감정들, 이는 손상되고 파탄해진 양심에서 비롯된 율법주의와 소심성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자타가 말하기를 그것은 충분히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더욱 열심히 말씀을 더 읽고, 기도를 더하며, 무엇인가 더 해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결국 그는 행위집착증에 빠지게

된다. 인생과 신앙의 모든 것은 (성도의 구원과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가치성, 대인관계, 성공과 성취감, 사회와의 관계) 나의 "올바른 행동"에 달려 있다고 은연중 믿는 것이다.

그릇된 존재양식은 그릇된 행동양식 즉, 그릇된 인생적응과 그릇된 대인관계를 낳는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른 존재양식은 바른 행동양식 즉, 올바른 인생적응 및 관계형성 양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양자에 분깃점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확히 인식함에 있다.

본서는 인간 특히 성도가 겪는 많은 의식적, 무의식적 갈등에 대하여 심리학적 진단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방안을 제시한다. 본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도의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기초임을 확인케 될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노력

양 방 웅

〈제13교구 성도〉

신앙심이 돈독한 교인이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한다면, 신앙심이 부족한 저는 땀땀하게 간증할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겠다고 생각한 바닥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마음속 한구석에 재 속의 숯불처럼 기독교를 향한 작은 불씨가 있어왔습니다.

국민학교때 좋아했던 여학생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고 무언가 교회에 대한 친근감을 느꼈으며, 그 교회에 그 여학생을 불결해서 나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여년이 지나 그때의 기억이 분명해진 않지만 꿈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마음이 이끌리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후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오랫동안 만난 그 여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년의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을 잊고 있던 1990년 9월 24일 사무실로 〈성경전서〉라고 쓰여진 소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또한 저의 아내를 모태신앙을 지닌 기독교인입니다. 장모님은 집사로서 새벽마다

기도를 드려 주셨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집사님은 결혼 후부터 끈질기게 교회를 다니자고 권유해왔지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답변을 보류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고등학교때의 다정했던 친구를 만나 종교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재 속에 묻혀있던 작은 불씨가 피어 오르는 듯한 힘이 생겨나고 그 다음날 중현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소중하게 가꾸어온 난이 첫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향기를 뿜어내던 그날 정광욱 목사님과 현정남 전도사님이 집을 방문하여 주시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성경전서〉위에 쌓인 먼지를 털고 그 책을 열어 보았습니다. 전혀럼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신앙심을 갖고 믿기에는 의문도 많고 생소한 타향에 온 듯한 이방인의 심정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 지난주일 새가족환영회에서 간증하는 양방웅 성도

■ 칼럼 / 역삼동에서 ■

최근 나는 동두천에서 시계공장을 하고 있는 장로 친구로부터 아주 좋은 벽시계 하나를 선물 받았다. 이 시계는 디자인(모양)도 고전적이고, 예정 시간이 되면 조그마한 창문을 열고 나와 "삐꾸" 소리를 울리는 애칭 삐꾸기 시계이다. 이 삐꾸기는 물론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든 모조제이긴 하지만 전자장치의 치밀한 톱니바퀴에 따라 하루 24시간을 어김없이 나와 시간을 알려주고 자기의 사명이 끝나면 문을 닫고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28평 규모의 아파트 공간에서 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삐꾸기 소리를 들을수 있어 삭막한 콘크리트 공간에 다소나마 정서적 기쁨을 안겨줄 때가 있다. 또 삐꾸기 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제 시간에 가정예배를 드리며, 하루일과를 순서있게 진행할 수 있는 시간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윤활유와 같은 질서를 배우기도 한다. 참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여 만든 평물성 시계이지만 때를 맞춰 우리 인간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에 매력을 느낄때가 있다.

그러나 삐꾸기 시계의 질서의 초침에 움직일 때 우리 주위에는 어떤 일들이 일

어나고 있었는가? 황금만능의 결과로 빚어진 부정대학입시의 커다란 충격과 한 정치인의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시곤편로 "대학이 뭐길래" 현금 1억이 상을 내고 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자

삐꾸기 시계

손 경 수

〈장로, 제17교구장·청년2부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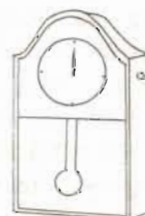
녀를 무리하게 입학시키는 학부모님들과 이런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억대의 돈을 받아가며, 부정 입학처리를 하고 있는 대학교 당국의 뻔뻔스런 처사와 소위 학교운영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학교 총장이 이를 진두지휘했다니, 한국 교육의 앞날이 한탄스럽다. 이렇게 해서 대학 졸업장을 수여받은 이런 학생이 이 사회와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겠으며, 그 후유증

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가슴이 아프다.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탐구, 학문연구의 극대화, 그리고 정직과 철학이 소멸할 때 대학교육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던 대학생이라는 고매한 인격이 안개와 같이 밝은 햇빛에 사라질까 정말 두렵다.

또 경제대통령을 꿈꾸었던 한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사회를 혼란시킨 그 책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내던져 파문만 남겨놓은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작태에 인간의 가증성, 교만, 오만에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때에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를 느낀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국가려

는 독선적인 신앙행위라든가 남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이기주의적인 맹종신앙에 빠져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예수꾼, 그리고 이리의 탈을 쓴 한국 교계 지도자들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앵무새 같은 부류가 상존하는 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감당할 수 없거니와 부정과 무질서의 세상 병을 치유할 수 없다.

좀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기독교인인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분야에 까지 들어가 실력으로(능력으로) 올바른 질서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켜 삐꾸기 시계의 질서와 책임감과 사명감을 완수하는 93년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토막소식

전가족 친교의 날

22교구, 23일 저녁에

◆ 제22교구는 2월 16일 오후 6:30에 만나홀에서 '예수사랑 작은잔치'를 개최한다. 제22교구의 모든 성도들은 이 잔치에 참석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 영아부, 유치부, 초등 1,2,3,4,5,6부와 에바다부(학생)는 오늘 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겨울성경학교를 앞두고 각부가 금주에 교사 준비기도회 및 교사훈련을 실시하며 겨울성경학교 준비를 마무리 짓게 된다. 영아부는 18일(목)에 충현기도원에서, 유치부는 19일(금)에 만나홀에서, 초등 1부는 18,19일 교회에서, 초등 3부는 19일(금)에 교회에서, 초등 4부는 19일(금) 교회에서, 초등 5부는 14일(주일) 교회에서, 에바다부(학생)는 19일(금) 교회에서 각각 모일 예정이다.

◆ 초등 6부는 면려회 총회를 열고 회장에 이형규군, 부회장에 정혜영양을 선출했다.

◆ 대학부는 2월 8일부터 제자훈련 초급반을, 2월 18일부터 중급반 제자훈련을 실시한다.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6시이다.

◆ 청년1부에서는 93년 교육목표인 "예수의 제자가 되자"를 이루기 위한 교사교육의 일환으로 자체 교사 특강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오는 17일(수) 오후 8:30시 선교관 칼빈홀에서 윤삼중 강도사의 '영적성장과 성숙'을 주제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청년3부에서는 "깨어 준비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4회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3부 회원뿐 아니라 충현교회의 청년3부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 장년1부는 교사 심방을 13일 - 20일 사이에 할 예정이다.

◆ 장년2부는 반별 친교회를 14일(주일)에 갖는다.

◆ 장년3부, 장년4부는 2월 중으로 반별 친교회를 갖고 반별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 사랑부는 2월 16일(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 에바다부(성인)는 2월 14일(주일) 비디오 상영 및 섬김명 외우기를 할 계획이다.

◆ 탁아부는 2월 21일(주일), 신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새로 탄생한 제 22교구 (교구장 최대원 장로)가 오는 23일(화) 오후 6:30에 만나홀에서 "전가족 친교의 날"로 정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의 교구 분할로 제22교구로 편성되었기에 교구 지도부와 일반 구역식구간에 서로를 잘 모르는 불편함에 계속되어 이번 친교의 날을 맞아 서로를 익히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자 온 교구 임역원이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제5교구(교구장 김광남 장로)도 교구모임 및 새신자 환영회를 3월7일에 갖기로 하고 준비 중에 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평일 선교위원회 사무실에 나와서 서류정리, 문서장리 및 기타의 일들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원할 사람은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 전화 552-8200 교한 35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봉사시간은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서 편리한 시간에 할 수 있다. 관심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93년도 1차 수화교육 과정별로 2개월간

교회학교 에바다부는 93년도 1차 수화교육을 3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2개월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육관 109호, 에바다부실에서 실시한다.

초급, 중급, 고급 각 반을 모집하는데 각 과정을 마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상급반은 반드시 하급반을 수료해야만 수강할 수 있다. 훌륭하게 수화를 구사하려면 고급반까지 마쳐야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로 교육관 115호, 에바다부 사무실에서 한다. 교육과정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초급과정 오전반 오전 10시
- 초급과정 저녁반 오후 7시
- 중급과정 저녁반 오후 7시
- 고급과정 저녁반 오후 7시

-선교지에서 온 소식-

외국인에 대해 유형, 무형의 압박이 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하심이 충현교회와 선교위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은 여전히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심을 갖고 모든 일을 대하고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방화, 외국인 폭행, 구타 그리고 포스터와 문서로 외국인들을 이 땅(독일)에서 몰아내야 자기들이 발붙혀 살수있다는 등등, 심지어 각 집집마다 편지함에 편지식으로 넣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기도가 요청되고 몸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별 사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말년시에 바쁜 시간으로 보내느라 정신 없었고 제직세미나를 1월에 한주간 동안 인도하였고, 밀린 집안 일들을 하다보니 몸살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기운차려 이렇게 늦게 소식드립니다. 작년 8월에 지하철에서 다친 작은 아들 중증이는 3개월간 병원신세를 지고 92년 12월 초에 학교에 겨우 다니지만 지금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특수 다리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다 기도해주신 덕분에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독일은 금년에 들어서서 모든 물가가 놀라울 정도로 뛰었고 세금도 15%로 올랐습니다. 꼭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와 선교위원회에 관계가 사무적인 것보다 신앙적, 인간적 관계로 우선하신다는 정책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제세요.

주소 : Rev. Ho-gi Yook
Leuchte 96
6000 Frankfurt/M. 60
Germany

TEL : 06109-36850 (서울에서는 49-6109-36850)
FAX : 06109-36695 (한국에서는 49-6109-36695)

독일에서 육 호 기 드림

◆천양대 주보에서◆

움추렸던 어깨를 활짝피며

오늘은 기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차 안은 수련회를 떠나는 30여명의 학생들이 현란한 움직임으로 부산했다.

"공동묘지 올라가는 시체가 발딱, 아우, 발딱, 아우, ...이이이", 인디언 밥, 007을 하던 나의 그때와는 또 다른 모습들이었다. 한걸음 물러서서 열린 미소로 지켜보는 내 얼굴이, 어슴프레 트여오는 새벽의 차창에 투영되어 들어올 때, 어느새 인가 이제는 돌아보며 그날들을 그리워하는 오늘을 사는 내가 그 속에 드러워져 있었다.

이제는 문체에 92라고 쓰고서 성경히 93으로 고쳐쓰지 않을 만큼 93년에 익숙해진 때이다. 얼마전에 친구에게 올 한해의 계획을 물었더니, 작년엔 차를 사고 회사에서의 TOEIC 성적이 2등급에 되는 것이었는데 둘다 이루었고, 올해는 TOEIC 1등급을 패스하고, 총각시절에 실패한 여행을 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그 친구 올해의 계획도 이를 것이다.

그런데 난 계획을 말해주지 못했다. 결혼하는 계획 말고는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못했으니까.

학생시절에 배운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이 직장생활 4년째인 지금에 와서는 희미하기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보다는 "어디에서 살며 무엇을 하느냐"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닌데

오늘부터라도 일기장에 무수히 쓰던 말 -보람-을 찾아내서야겠다. 평택역의 차가운 기운이 코 끝에 전해졌지만, 움추렸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었다.

어제는 온통 무채색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하늘이 들어오는 사무실에서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 아침엔 반사 유리 너머의 빨간간 태양이 색변잡없이 내게로 힘차게 달려온다.

김 태 석

임마누엘천양대에서
매 주일 대는 <임마누엘>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남 거제의 외포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기원합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형적인 어촌마을로써 교회의 역사는 약 70년이라는 많은 세월을 보내었으나 아직 성숙치 못한 아주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교인수는 장년 35명, 중,고생 15명, 유년주교생 40명 정도의 에제 겨우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를 짓기엔 너무나도 힘이 들어 교인들의 헌금 3,500만원과 약 1개월 동안을 거제의 특산물인 유자청을 직접 만들어 이것을 팔아 성전 건축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을 다니며 팔았습니다. 그러나 약 1000개를 더 팔아야겠기에 귀 교회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은 2리터들이 1병에 1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헌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보다는 제회들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든 것을 드리고 그것만 받았으면 하여 협조를 의뢰합니다.

세울 교회의 행편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주일제외, 사무국 앞에서 판매합니다.)